

## 예비체육교사들의 교육실습에 대한 인식과 경험

송 용 관(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변 정 현(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

### 《 요 약 》

---

본 연구는 중등 체육교과 교육실습생들이 실습을 통해 어떠한 경험과 인식을 지니는지 규명하여 해당 현상을 면밀히 기술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 일지 82부에 기술된 내용과 14명의 실습참가생 면접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은 실습의 과정과 내용 측면에서, ‘참관→수업실시→종합평가’의 과정으로 실습에 참여하며, 실제 수업진행에는 1, 2주차에 주로 투입되고, ‘교과지도, 학급경영, 교육행정업무’ 등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인식과 경험 차원에서는 첫째, 지식의 실천적 적용 기회를 가지며 대학체육교사교육과 교육현장과의 거리감을 인식하거나 체육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현장의 암묵지를 습득하며 교과수업 내외관련 노하우와 인식을 형성하며 성찰적 경험학습을 하고 있었다. 셋째, 직업으로서의 교직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은 향후 현장적합형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실습내실화 방안을 탐색함에 있어, 실제로 교육실습기간 동안 체육과 실습생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 줌으로써 체육교사 양성교육의 개선과 강화에 대한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교육실습, 예비교사, 체육교육, 체육수업, 체육교사교육

---

## I . 서론

교육실습은 교사양성교육의 한 과정으로, 실제 교사의 역할에 임하기 이전에 자질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에서 지도를 받는 직무교육(OJT: on the job training)의 성격을 띤다. 또한 교육현장의 상황에 직접 접하여, 교직과정 이수를 통해 학습했던 교육학 이론과 교과 전문지식들을 예비교수자로서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이다. 인지적으로 학습하여 형식지(explicit knowledge) 수준에서만 알고 있던 교육학 및 교과지식들을 표출(externalization)하고 내면화(internalization)하는 계기를 가지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노하우인 암묵지

(tacit knowledge)를 형성하는 학습 및 지식창출(Nonaka, 1987, 1994)의 기회인 것이다. 더욱이 예비직업인으로서 현업과 현장을 체험하며 경력준비를 위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도 하며, 교육현장에서 습득하고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요건이 무엇인지 연습하고 준비하는 장이 된다. 실습은 지도교사의 책임 아래 교직생활과 수업 참관 등을 주 내용으로, 학급경영, 학생지도 등을 연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생으로서는 특정 직업인(지도교사)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서 직접 확인하고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가운데 그 직업에 대한 적성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잡 새도잉(job shadowing) 프로그램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육실습 과정에 대해, 전문성과 사명감을 보다 충분히 배양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내실을 더욱 기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강동원, 꺾은창, 1995; 강환국, 1995; 교육부, 2004; 김대진, 2006, 2008; 김용환, 1992; 박종률, 2006; 손천택, 2002; 최의창, 1996; 한국교육개발원, 1997). 2003년 4월말에 이루어진 OECD의 한국교원정책과 교직사회에 대한 방문조사에서도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전문성 취약 등으로 예비교원 자질함양에는 미흡함이 존재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제안된 바 있다(김이경, 2003). 이에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를 위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으로서 양성기관별 교육실습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과 시·도교육청에 교육실습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교육실습이 4학점 이상으로 확대되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16개 시·도교육청과 모든 대학에 교원양성 위원회가 설치되어 2008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실습의 내실화에 대한 요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제는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일선 교육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 형식적인 실습’이라는 오명은 깨끗하게 씻어버리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실습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실습이 어떠한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가, 또한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였는가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대학은 교육실습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교육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인정기준이나 이수방법을 마련해야 하므로, 실제로 교육실습생들이 실습기간 동안 무엇을 경험하며 느끼고 배우는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교원양성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비롯되는 연유에 대해 교육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개선할 사항들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실습을 강화하여 교사의 학습지도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독일과 영국은 수습형태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이해하고 교과지도를 위한 기획·평가력을 배양하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교육실습 과정이 기능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실습 양상에 대한 생생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교육실습의 이러한 교육적 의미와 실제적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교육실습은 단순한 교수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목인 교과지식과 교직과정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방법론을 교육현장의 실제에 적용시키는 실천과정으로 본다. 특히, 김신영(2005)과 Glement(2002)는 교사양성 과정에 있어서 교육실습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교사양성기관은 교육실습을 실시하여 다양한 현장실습 및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백유순, 박계신, 박혜준, 박현주, 2005; 최관용, 2006). 교육실습이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습자를 지도하는 교수자의 전문가적 역할과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실습제도의 여러 측면과 문제점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은 그만큼 교사 양성 과정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실습기간(김대진, 2006; 손천택, 2002; 유정애, 2000), 현장지도교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조석훈, 2004), 획일화된 교육과정(강신복, 이승배, 전세명, 성기훈, 2008; 김대진, 2006, 2008; 김영우, 1994; 류태호, 2002; 손준구, 2006; 유정애, 2005; 최의창, 1996, 2007), 교과교육전공자 부재 및 교사교육 연구의 부족(김대진, 2006), 현장이 아닌 이론중심적 교육(김대진, 2006; 손천택, 2006; 최의창, 1994, 1996) 등을 주된 문제로 제기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교사양성 교육과정과 정책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과정을 통해 느끼고 경험하는 실제적 현상에 대한 기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로 인해 교육실습과정의 주 대상인 예비교사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실습제도 개선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된다.

조석훈(2004)도 교육실습의 비중이 커지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학술적 관점에서 교육실습 과정은 상당 부분 블랙박스로 남겨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교육실습의 논리, 구조, 과정, 방법, 효과 등의 여러 측면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논했다. 또한, 체육교사교육에 대한 선행연구(김대진, 2006, 2008; 김진희, 2008; 박종률, 2006; 손천택, 2006; 최관용, 2006)들은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를 통해, 체육교사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현황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방법에 의해 예비체육교사 교육에 대해 조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실습에 초점을 맞춘 학위논문은 10여 편에 불과하며, 예비초등교사의 실습에 대한 연구에 비해 중등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질문지를 사용한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실습생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를 갖고 있다(조석훈, 2004; 허창수, 2007). 즉 실습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질적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특히 체육교과의 예비교사의 실습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보건교육 개정으로 인한 체육시수 감축 논란 등과 관련하여 체육교과의 전문성과 책무

성 영역이 도전받고 있는 시기적 정황에 비추어볼 때, 체육교과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적 준비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일환으로 실습내용의 내실화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등 체육교과 예비교사가 교육실습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기록한 실습일지와 실습생들과의 심층면담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어떠한 경험들을 하며, 그러한 경험은 예비체육교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조명한다. 이러한 체육교과 예비교사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기술 연구는 향후 체육교과 교사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예비교사를 지도하는 일선교사 및 교육과정 연구자들에게도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실습절차)을 거쳐 무엇(실습내용)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지식을 적용하거나 예비직업인으로서의 견습과정을 하며 무엇을 느끼고 배우는지(학습내용과 성찰사항)에 대해 생생하고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 실제로 경험하는 체육교과 교육실습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실습일지 82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2차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듣기 위해 14명의 실습참가생을 대상으로 1:1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우선 서울소재 B대학교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에서 체육과 교직과정을 이수하며 교생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교육실습일지를 1차적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2007년도 상반기 중 4주간 실습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수집된 일지는 총 82부이다. 실습생들은 주로 서울·경기 소재의 중등교육기관에서 실습을 하였고, 남학생이 70명, 여학생이 12명이었다. 실습일지에는 개별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이 활동내용(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관찰, 조사 등)과 반성(reflection) 및 소감을 기록한 것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무엇을 실습하였는지를 규명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분석에 사용된 모든 실습일지는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비 및 계획사항, 오전·오후활동 내용, 반성 및 소감, 내일의 계획, 지도교사 조언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틀이다. 이 자료는 실제로 대학에서 실습계획을 통해 지향하고 있는 실습절차 및 내용과 현상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수집된 교육실습일지를 작성한 실습생들의 간단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실습일지 분석대상자 정보

항목	실습생 성별		실습생 소속		실습학교 유형	
	남	여	사범대(학부)	교육대학원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	70명(85.4%)	12명(14.6%)	77명(93.9%)	5명(6.1%)	45명(54.9%)	37명(45.1%)
합계	82명(100%)		82명(100%)		82명(100%)	

〈표 2〉 면접 참여자 정보

사례	참여자 (이니셜)	나이 (만)	성별	실습학교 특성		체육과 지도교사 경력	지도교사와 담임교사 일치 여부
1	JJ	23	여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사립)	남(경력 15년)	일치
2	SW	23	여	서울소재 일반계고교	남·녀공학(공립)	남(경력 20년)	일치
3	JW	23	여	경기소재 중학교	남·녀공학(공립)	남(경력 12년)	일치
4	KY	24	여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공립)	남(경력 6년)	일치
5	BY	29	여	서울소재 일반계고교	여학교(사립)	남(경력 30년)	불일치 (담임=화학)
6	YG	28	남	서울소재 일반계 고교	남학교(사립)	남(경력 32년)	불일치 (담임=수학)
7	DS	30	남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사립)	남(경력 20년)	일치
8	TY	26	남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사립)	남(경력 13년)	일치
9	JY	27	남	서울소재 일반계고교	남학교(사립)	남(경력 30년)	불일치 (담임=사회)
10	TK	26	남	서울소재 일반계고교	남·녀공학(공립)	남(경력 20년)	일치
11	MK	27	남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공립)	남(경력 3년)	일치
12	MI	28	남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사립)	남(경력 7년)	일치
13	IB	30	남	서울소재 중학교	남·녀공학(공립)	남(경력 30년)	일치
14	SC	27	남	서울소재 일반계고교	남학교(사립)	남(경력 30년)	일치

한편, 실습생들이 느끼고 배운 점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담기 위해서는 실습일지를 1차적인 자료로 쓰되 추가적으로 실습일지를 작성한 사람들 중 일부를 편의표집하여 개별 면접을 수행한 뒤 질적 분석의 자료로 삼았다. 실습일지는 지도교사 및 교장 등이 조언과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록된 반성과 소감의 내용은 진실에 가까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즉 부정적 반응과 진술한 느낌은 걸러진 채 문서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생생한 체육과 실습생들의 느낌과 진술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따라서 실습일지를 작성한 학생들 중 연구자

가 섭외하여 참여를 허락한 14명을 대상으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걸친 면접을 수행하였다. 면접에 참가했던 당시 대상자들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면접자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체육교육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는가, 체육교육전문가로서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는가, 직업으로서의 체육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가, 교생실습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제시하여 실습기간에 느꼈던 경험을 말하도록 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실습일지는 2008년 2월 한 달간 수집하였다. 실습일지는 실습 종료 후 실습관리부서에 제출하고 학기말에는 학생들이 되찾아가도록 공지된다. 일지를 되찾아간 학생들에게는 일차적으로 연구자가 개별 연락을 취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지를 제공받았으며(20부), 이차적으로 기한 내에 일지를 수령하지 않은 학생은 일지를 보관 및 폐기하고 있는 실습관리부서의 동의 하에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의 명단을 받고, 해당 학생들과 개별 접촉하여 연구 취지를 설명한 뒤 동의를 구한 것(62부)만 분석자료로 삼았다.

면접자료의 수집은 2008년 3월 첫 주부터 2주간 개인당 약 1시간에 걸쳐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구자들에 의해 직접 수행됐다.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이 느끼고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수행된 면접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을 했고 주요 내용은 현장에서 정리(field note)했다. 면담종료 후에는 1일 이내에 녹음한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자료로 삼았으며, 전사하는 가운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적으로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이렇게 수집한 실습일지 자료와 면접 전사 자료의 내용은 실습(the phenomenon)을 하는 동안 어떠한 절차로 무엇을 경험하며 느끼는지(lived experiences) 파악하기 위해 현상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중심적이며 본질적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Creswell, 2005), 체육교과 실습생들이 교육실습을 하는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배우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Moustakas(1994)가 발전시킨 현상학적 분석 접근방법인 Stevick-Colaizzi-Keen 접근법에 근거하여, 의미있는 진술들을 나열한 뒤(자료의 수평화; horizontalization), 그것을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분류하여 조직적으로 기술(textual description)하고, 현상에 대한 준거들을 다양화하여 반성을 거치며 구조적으로 기술(structural description)한 뒤 경험의 의미와 본질(essence)에 대한 기술을 구성하는 절차로 일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자료의 타당성 확보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자 2인은 상호 검토를 실시하는 연구자 다각화(investigator triangu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자 다각화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관점들을 토대로 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거나 편향된 분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전략(Denzin, 1978)으로, 본 연구자들은 실습일지와 면담전사내용을 상호 교환하며 3회씩 반복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둘째, 편향된 자료수집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실습일지(82부)와 면접 자료(14명)를 함께 활용하여, 한 가지 이상의 자료 출처를 사용하는 자료 다각화(data triangulation)를 통해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수집된 면담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의미 추론이 참여자가 응답한 내용과 일치하며 왜곡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연구내용을 면접참여자에게 보여주고 확인(member check)받았다. 즉 면담을 전사한 자료와 분석내용을 면접자에게 다시 확인하여 면접자의 의도와 다르게 기술된 것이 없는지 검토받았다. 한편 이 연구에 자료를 제공한 실습일지와 면접대상자들은 모두 이니셜로 언급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 1. 교육실습의 과정과 내용

교육실습은 일반적으로 ①강의실에서 배운 교육학 및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②이론과 실천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수정·보완하며, ③교사로서의 자신의 자질과 적성을 스스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강선보, 권대봉, 오영재, 한용진, 홍기춘, 2007). 따라서 교육실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습학교의 환경을 이해하고, 실습교의 구성원과 학생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교생 자신의 전공 실력수준과 교수·학습기술의 반성과 평가, 자신의 적성과 교직과의 부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교육실습의 기본적 성취목표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4주간의 교육실습이 ‘1주차: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참관 → 2주차: 수업참관 및 수업 실시 → 3주차: 수업실시 → 4주차: 공개수업 및 종합평가’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표 3 참조). 82명의 체육과 교생들의 실습일지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이처럼 4주차로 실습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일지에 기록한 경우는 39명(47.6%)이었으며, 절반을 웃도는 43명(52.4%)은 실습 첫 주부터 직접 실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김대진(2006)은 중등체육교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교육실습학교에서의 형식적인 운영 및 관리라고 언급하면서 실습학교 선정 및 실습의 강화가 절실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창수(2007)의 연구에서도 교육실습학교에서의 형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짧고 제한된 수업참관 및 실습, 그리고 같은 교육실습의 과정과 내용의 반복이 교육지식을 재구성하는 장으로서 교육실습을 제약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습일

지의 일간계획사항 및 오전·오후활동 내역 항목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 교육실습 계획 권고안에 따르지 않고 첫 주부터 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경우 수요일이나 목요일부터 첫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은 지도교사의 수업을 1, 2회 정도 참관한 후 별도의 학습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이 없이 실제 수업에 임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한편, 4주의 교육실습 기간 중 일부 실습생(20명)들의 일지에 활동 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채 공백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습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것에는 야영 및 수학여행 등을 포함한 예술체육행사로 3일에서 5일 정도 실습 진행 공백인 경우가 8명(9.8%)로 가장 많았으며, 특기자들의 경우 약 1주간 시험 출전으로 실습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5명(6.1%), 체력측정평가로 실습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1명(1.2%), 중간고사로 인해 실습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6명(7.3%)이었다. 이러한 특별한 일정 또는 상황으로 인해 실습내역이 기록되지 않은 실습생들은 모두 실습일지에 ‘수학여행’ 등과 같은 행사 제목만 기재해 놓은 채, 느낀 점이나 실습한 내용 등은 모두 공백상태였으며 담임 또는 부장교사 등의 결재 공간 역시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만 한하여 분석하였다.

〈표 3〉 교육실습계획 권고안과 실제 실습현황의 차이

구분		대학의 교육실습 권고 내용	실습생들이 경험한 실제 교육실습내용			
1주	관찰기	○ 오리엔테이션 및 학교 소개 ○ 교과지도 교사 안내 및 실습지도 협의 ○ 수업참관 ○ 학급경영 및 청소지도	실습 현황	○ 대학 실습계획대로 실습이 진행된 경우	39명 (47.6%)	
				○ 1주부터 실제 수업을 실시한 경우	43명 (52.4%)	
				소 계 82명(100%)		
2주	참가기	○ 실습계획 협의 ○ 교재 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 수업참관 및 실습지도 협의 ○ 학급경영 및 청소지도	실습 공백 발생 실태	○ 수련회, 야영이나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로 인한 3일 이상의 공백	8명 (9.8%)	
				○ 특기자(야구, 농구)의 시험 참가로 인한 공백(1주일)	5명 (6.1%)	
3주	실습기	○ 수업참관 및 실습지도 협의 ○ 학습지도(1일 1시간) ○ 평가문항 작성 및 처리 ○ 학급경영 및 청소지도		○ 체력측정평가로 인한 공백(3일)	1명 (1.2%)	
				○ 중간고사(3일~1주일)로 인한 공백	6명 (7.3%)	
				소 계 20명(24.4%)		
4주	정리기	○ 수업참관 및 학습지도안 작성 ○ 공개수업 ○ 학급경영 및 청소지도 ○ 실습평가 및 반성				

이처럼 실제로 체육과 교생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떠한 일정으로 교육실습이 이루어지는지 비교분석한 결과,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참관 등을 통해 실제 교사의 수업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관찰 또는 모델링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3명(52.4%)의 학생들은 첫 주부터 바로 실제 수업진행에 투입되는 것으로 기록했는데, 교사의 수업진행 및 교수학습지도에 대한 모범사례를 충분히 관찰하지 못한 채 실제 수업에 투입되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생들과의 개별 인터뷰 내용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교사가 수업하는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생 나가자마자, 체육관 꾸러미 열쇠를 그냥 주셔서 열쇠를 받고 첫날부터 4주 동안 혼자 수업을 진행했지...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봤는데... 그냥 지도교사가 '하고 싶은 수업 하세요' 그랬지... 지도교사가 수업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선생님의 수업을 내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선생님이 '됐다'고 했어... 처음에는 본 게 없으니깐... 무얼 해야 할지 막막했어... 대학에서 배운 이론은 있지만... 그 걸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BY, 면접)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공교롭게도 모든 실습생의 일지에는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및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와 같은 실습일지 속에 드러난 교육실습 운영의 실태나 면접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교생실습이 본래 목적과 같이 현장적합적 전문성을 제고하여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기회가 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실습계획과 달리, 실습생들이 충분히 지도교사들의 사례를 관찰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재를 연구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을 구성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학습지도안을 충실히 작성하지 못한 채 실제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들이 많아, 이론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체육교사로서의 직업탐색을 내실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생이 학습환경 분석과 학습자 분석을 생략한 채 수업에 임하기 때문에 교육실습 경험에서 갈등을 겪는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일치한다(김용환, 김영희, 200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선행연구들도 교육실습 과정에 제도적 장치 보완의 필요성(조미혜, 박수정, 2006; 최진숙, 2005; 최희진, 2003), 교생을 위한 멘토교사제, 멘토링 시스템 운영, 반성적 사고를 기초로 한 교육실습 운영 등 지도교사의 역할 강화(김신영, 2005; 이인경, 2005; 유홍옥, 2005; 윤기옥, 이학주, 2001; 최희진, 2003), 교육실습에 적합한 학교 선정(김용환, 김영희, 2001) 등 교육실습 내실화 도입 및 강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체육교과에서는 효과적인 교육과정운영 및 고유성과 탁월성을 통해 정체성 확립이 시급히 개선되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대진, 2006). 결론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교육실습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와 관련된 인적요소 등이 효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교육실습 경험의 의미

### 가. 지식의 실천적 적용: 교과전문성 및 정체성의 인식과 혼란

#### 1) 지식 적용 및 확인의 기회

체육과 교생들은 교육실습의 기회를 통해 체육교육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대학 강의를 통해 배운 교육학 및 체육교과에 대한 전반적 이론 및 자신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새로운 뉴 스포츠를 적용했지... (중략) 내 나름대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 적용해 보면서..기분이 좋았어... (BY, 면접)

3학년 5반 수업시 스포츠 심리학 내용 중에 배운 심리기술 훈련에 대해 수업하였는데,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수업내용 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KBE, 일지)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피드백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측면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했어요)... (SW, 면접)

제가 나간 학교는 농구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학교에서 농구 실기 수업을 제대로 못 배웠으면 교생실습 나가서도 수업 진행에 있어서 확실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학교에서 실기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KY, 면접)

체육교과의 특성상 대학에서 배운 실기 지식 및 기술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효과적인 전문지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으며, 수업내용을 선정하거나 진행할 때는 물론 학생들에게 피드백 하는 상황에서도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적 측면의 내용이 도움이 되거나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회고하였다. 따라서 교육실습의 기회는 실습생들에게 그들이 이론적으로 학습하여 쌓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지식실천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실습을 통해 교직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고, 대학과 삶에 경험에서 배운 교육관련 이론과 지식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정혜영, 2008), 교육실습 이론 및 지식이 현장과 연결되는 ‘접목지대’로 개념화하고, 이를 통해 교수 경험을 습득하며(한지혜, 1993), 다양한 학생들과 현 학교 교육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경험(최희진, 2003)이 되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교육실습의 취지와 합목적성을 주된 내용으로 언급했던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을 통해 실습경험의 부정적 경험과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비중있게 도출할 수 있었다. 향후 내실있는 체육과 교육실습의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는, 뒤에서 범주화 및 제시된 ‘대학 체육교사교육과 체육교육현장 간의 거리감 인식’, ‘체육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회

의감'을 실습생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체육교과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 2) 대학 체육교사교육과 체육교육현장 간의 거리감 인식

체육교과지식 및 교육학 이론을 접목하고 확인하는 실천적 지식의 장이 되었다고 회고하는 실습생들이 있는가하면, 어떤 실습생들은 체육교과 지식 및 이론과 실제 체육수업 및 현장 간에 괴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실습생들은 체육학의 이론과 지식이 실제 교육현장의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존재하고, 실제 체육수업을 운영할 때에는 비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인식했다.

체육교육 전공자로서 학교에서, 교실에서 이론으로만 배우던 지식을 직접 현장에서 실습했을 때 느끼는 교생실습 전과 확연히 달랐다. 이론으로 설명가능하고 쉬워보였던 것이 현재 학교에선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이와 반대인 경우도 다반사였다. 우선 거의 모든 이론과 수업계획이 아직 학교 교내 체육시설 인프라를 앞서간다는 점에서 괴리가 가장 컸다. (KTB, 일지)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은 거의 도움이 안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따로 일을 하거나 체대입시학원 같은 데나 트레이너 등으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교생을 한번 가서 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일회성이어서 배운 이론을 써먹는 게 별로... (체육이) 전문성은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막상 (대학)학교 교육은 아직... 학교에서 배운 거랑 현장에서 하는 거랑 전혀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공부는 학교공부고... (IB, 면접)

이는 대학에서 개설된 이론과목들의 상당 부분이 중등체육교사의 지도능력을 기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체육내용학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손천택, 2002)과도 일치한다. 또한 대학체육교육을 통해 학습한 체육학의 이론과 지식을 현장에 실천하고 접목하여야 한다는 의지는 있으나, 체육교육 현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를 느껴, 체육교사교육과 체육교육현장간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면접 대상자 14명 중 10명의 학생들이 체육교육 현장에 대해 '아나공' 수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러한 이들이 인식한 현장의 수업형태는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말 그대로 '공만 던져주면'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거리감이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아나공 수업이라고 하는 안 좋은 수업에 대해서 탈피하고자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나갔는데... 제가 나갔던 학교에서는 아직도 아나공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나공 수업이면 굳이 체육과를 나와서 체육교과를 이수해서 배운 사람이 체육선생님을 안 해도... 일반사람이 와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체육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SC, 면접)

미리 수업을 해보거나 준비해 보고 가지도 못했고,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도 없고... 본 거는 ‘모여’, ‘들어가’, ‘나와’ 하는 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배운 게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어떤 모형이 있고 그 모형의 장점이 뭐다 하는 정도만 배웠던 거 같아요. 그런 모형을 가지고 수업계획서를 짜고 수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막상 실습을 갔더니 수업계획서를 짜지도 않고 그냥 지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깐, 재미있게 하고 애들이 탄 것하던 통제를 해야지 하는 생각만 했지... 수업이 붕괴되었을 때,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배운 게 전혀 없어서 수업을 하게 됐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YG, 면접)

따라서 향후 체육교육학 분야에서는 협력학교와의 현장지향적인 실천연구를 수행하거나 예비체육교사들에게 모의수업을 경험하게 하는 등, 실제 체육수업 및 학교현장과 체육교사 교육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실제적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다. 체육교수학습모형이나 이론 역시 현장지향 및 적합형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3) 체육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감

실습기회를 통해 체육과 학생들은 체육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가졌다고 인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학 체육교사교육과 실제 학교 체육수업현장과의 거리감에 대해 느끼며 다소 부정적으로 경험을 회고하기도 하는가 하면, 또 일부는 아예 체육교과목 자체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체육은 움직임 욕구의 실현, 체육문화 계승·발전이라는 내재적 가치와 체력·건강의 유지 및 증진, 정서 순화, 사회성 함양이라는 외재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여 전인을 기르는 데 공헌하는 교과임을 지향하고 있지만(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http://classroom.re.kr>), 예비교사들은 그 가치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주요 교과에 밀려 체육은 학습의 일부라기보다는 노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다. (YWS, 일지)

체육은 연구수업 교생을 선정할 때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분위기였다. (LSH, 일지)

체육교과의 시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며, 학생은 물론 교사들마저도 체육교과에 대해 중요성이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번외’로 간주하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체육교과의 지식을 적용하고 전문성을 경험해 보기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왜 필요한가 내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며, 체육교과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체육수업을 1시간 밖에 안해요. 너무 대학입시를 강요하기 때문에... 체육을 통해 수업을 진행할 시간도 거의 없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체육을 통해 그걸 풀어주지도 못하고... 학교도 체육수업을 줄이는 분위기고... (JY, 면접)

씩 바람직한 수업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 시험이 끝나면 아나공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학교의 수업 방식이었다. 때문에 아직도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체육학도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LSH, 일지)

이와 같이 일부의 학생들은 체육교과 자체가 중요하거나 필요하다는 인식을 별로 받지 못해 교생실습을 통해 오히려 교직에 대한 무기력을 학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체육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타교과에 더 관심과 재능이 있어서(41.9%), 대학진학에 도움을 못 느껴서(8.6%), 교과자체에 관심이 없어서(7.2%),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있다(신승호, 김승재, 2004)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학생들에게 체육과목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교생실습을 하면서 체육과 실습생들은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체육교과라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반문을 던지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체육과 실습생들이 교육실습을 통해 체육교과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는 것은, 체육교과와 체육수업에 대한 중요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학계와 현장에서 더욱 경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나. 현장의 암묵지 습득: 학습과 성찰의 기회

### 1) 현장 교사의 수업 노하우 습득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체육과 학생들은 대학강의를 통해 습득했던 지식수준과는 상이한 형태의 암묵지에 대해 학습했던 것으로 회고했다. 즉 교재와 강의를 통해 인지적으로 형성 하였던 형식지와는 달리, 현장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거나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체육교육 현장전문가로서 필요한 암묵지에 대해 학습한 것을 일지와 면접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절 담당하신 선생님은 학생들의 동기유발을 잘 시켰던 거 같아요... 특히 경쟁을 통해서, 선생님께서는 논리적으로 애들을 잘 설득하여 수업 진행시 동기유발을 향상시키셨던 거 같아요. 그 외에도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수업이 지루해질 때 새로운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시켰어요... 그 선생님한테 그런걸 보고 배웠다고 생각해요... (KY, 면접)

무언 속에 가르침이 있었던 거 같아요. 보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줬어

요. 선생님이 평가하실 때 저보고도 따로 해 보라고 하고... (MG, 면접)

가장 기본적인 복장문제부터 수업시 학생들의 방향, 수업위치, 다른 수업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장소선정, 호루라기 사용방법 등 수업 전에 준비해야 할 상황뿐만 아니라 수업시 출석확인 방법, 스트레칭, 아이들 주목시키기 등 수업 중에 확실히 해야 할 것도 알게 되었다. (LSM, 일지)

실제로 지도교사가 이론적으로 혹은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 인지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수업을 관찰하면서 무형의 암묵적인 기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체육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들을 학습한 것이다. 평가는 물론 운동기술을 교수(teaching)하는 것, 학생과 수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만족도가 높고 안전한 수업을 이끌기 위해 준비하는 것 등을 실습생들은 관찰하며 깨달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육실습 경험은 교생들에게 학교 현장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경험으로서,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김병찬, 2005; 정혜영, 2008; 허창수, 2007).

## 2) 지도교사의 교과지도 외적 측면을 통한 교서관 습득

실습생들은 체육교과의 교수학습 지도뿐만이 아니라, 교과지도 외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나름의 교사와 관련된 인식을 형성하고 느끼고 깨닫고 있었다. 즉 체육교사이기 이전에 교사로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과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고 일지와 면접 자료를 통해 회고한다.

교생실습을 통해 교사가 여러 상황에서 대처하는 법, 현재 교육의 실태, 학교상담, 학생들을 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마냥 쉬운, 편만한 직업이라고만 생각을 하였는데 학교 서류창고 청소, 학생 다이어트 프로그램, 행사 기간 때 준비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쉽지만은 않은 직장이라고 느꼈습니다. (JSH, 일지)

이번 교생실습 기간을 통하여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 학생들과의 접촉점에서 비추어지는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것과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항상 무엇인가의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사야말로 훌륭한 교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KMS, 일지)

즉 학생-교사관계를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관찰함으로써,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학급경영이나 생활지도, 상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과 좋은 수업의 속성, 교사로서의 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실습생들은 고민하며 그러한 행동 속에 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교사 역할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깨닫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교생들은 수업 외에서의 학생들과의 교감, 담임 및 지도교사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교육실습 의미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김병찬, 2005;

허창수, 2007). 한편, 교생들은 교사의 영향력, 학교의 분위기, 가정환경, 사회문화적 문화 등의 교육환경 등에 따라 긍정적·부정적 교육신념을 경험하게 되는데(정혜영, 2008),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에 나타났듯이, 부정적 측면 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실수와 잘못된 점을 통한 학습

교사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고 노하우를 습득하는가 하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개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교훈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즉 수업장면을 관찰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성찰을 통해 인지하고 그러한 점들을 개선하거나 소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실습생들이 수업 관찰과 진행을 통해 확인한 실수와 오류 상황들을 인지하고 이것을 통해 학습을 이루어내는 오류기반 학습(Error-based learning, Frese & Altman, 1989; Ivancic & Hesketh, 1995)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육상스타트 하는 것을 가르쳤다. 잘 모르고 잘 못 가르쳐준 같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준비를 해서 가르쳐줘야겠다. (KYM, 일지)

아이들의 평가 방법과 과정을 보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가져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구 시간에 아이들의 잘못된 자세를 인지하고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바로 잡아 주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 (KTY, 일지)

사고가 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난감했고, 빨리 파악하지 못해 담임선생님께 보고가 늦어 죄송한 것도 많았다. 안전사고는 예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아이들에게 항상 주의를 시켜야겠다는 것도 배웠다. (KTY, 일지)

즉 체육과 학생들은 실제 교사가 되어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이전에, 미리 교육실습 기회를 통해 잘못된 점들을 개선하고 대처하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병찬(2005)은 실제 교육실습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실습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를 형성해 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선행연구들에서는 이 같은 시행착오나 실수를 통한 학습의 의미에 대해 조명한 것을 찾기 힘들었다. 따라서 향후 교사로서의 자질을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김신영, 2005; Clement, 2002)로서 교육실습이 보다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형식지적 학습 뿐만이 아니라, 암묵적인 학습과 실수와 오류를 통한 반성적이고 경험적인 학습에 대해 심화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다. 교직 탐색의 기회: 자신과 직업세계와의 적합성 판단

### 1) 교직에 대한 긍정적 구직동기 확인 및 점검

지식을 적용하고 암묵지를 학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체육과 교생들은 실습 경험을 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탐색한 느낌을 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실습을 통한 교직 경험을 기반으로 각자 느끼고 깨달은 점을 성찰하며 그 직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직업 및 적성 탐색의 기회를 가졌고, 많은 학생들은 이 경험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일부의 학생은 교직의 안정성이나 자기개발 시간의 존재, 방학의 존재 등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자신들이 생각하는 직업 가치관에 견주어 보았을 때 적합한 직업이라 여겨진다고 대답하였다.

체육교사는 단지 공을 주는 사람이 아닌 심신을 단련시키고 건강을 책임지며, 도덕성과 생활지도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한 달간의 경험을 토대로 배움과 반성의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교사로서의 가치관을 세우는데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HSK, 일지)

지금까지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를 관찰해본 결과 정말 열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바쁘고 힘들며,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업무가 열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다고 느꼈다. 만약 선생님이 되면 바쁘고 힘든 일들을 많이 하는 열정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JSH, 일지)

정확히 교생실습 나가기 전에는 직업으로써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 맘이 없었어요... 그러나 교생실습을 다녀온 후에는 어느 정도 바뀌었어요... 지도교사의 노하우도 보고 경험했고... 애들을 가르치는 게 즐거웠고... 그에 대해 연구도 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하면 잘 가르칠 수 있었고... 그런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DS, 면접)

편하게 하면 한없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고, 현재 문제점을 알고 개선하려면 진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간에 아이들하고 직접 부딪히니까 아 이런 점도 있구나 하면서, 계속 하고 싶다... 많이 알고 잘 가르쳐야지... 교사로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MG, 면접)

실습을 하기 이전부터 교직을 희망하였던 경우도 있으나, 희망하지 않았던 경우의 학생도 교사들의 수업노하우를 관찰하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교직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직업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과 전문성, 열정에 대해 인식하고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구직동기를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교육실습의 경험이 체육과 학생들에게 교직의 긍정적인 측면을 실제로 맛보게 하고 교직에 대한 열의를 보다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병찬(2005)은 예비교사들이 교육실습 과정에서, 수업, 상담, 생활

지도, 이야기 나누기 등 아이들과의 접촉 과정을 통해, 가르치는 일의 보람을 느끼며, 교직의 맛을 경험함으로써, 교육실습이 예비교사들의 내재적 교직동기를 자극하여 가르치는 일에 대한 내적동기를 확인, 점검하게 해 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 2) 교직에 대한 부정적 직업인식 형성

반면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오히려 체육교사는 물론 교직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고, 자신의 직업적 선택안으로서 교사를 배제하거나, 혹은 직업적 선택안으로 고려하고는 있으나 직업가치관이 변모하게 되었다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교사가 하고 싶은 것이, 돈을 벌고 안정적인 걸 떠나서 저의 꿈이자 자아실현이었는데... 교생실습을 다녀와서 굉장히 실망이 컸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체육교사라는 직업은 저에게 꿈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한 직업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들었고 실제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공부하기 싫었고 제 스스로 동기도 떨어졌고 너무 많이 실망이 커서 제 자신이 많이 나태해졌어요... (SW, 면접)

교직원 회의 참관을 했는데, 그 정도 내용이면 공문으로 내려 보내도 될 것을...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공지사항 전달에 불과했던 것 같다. 좀 더 진취적이고 교육현장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회의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역시 교직도 공무원 사회라 정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중략) 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안정된 삶, 여유있는 직업이라는 선입견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학생들과의 한 달을 지내고 난 뒤...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변함이 없지만, 그 동기가 조금이나마 변하는 시간이었다. (LDK, 일지)

교직에서 기대하였던 것이 실제 교육실습을 통해 경험해 보고 나서 충족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자신의 직업적 가치관과 상충되는 사항들을 확인하면서,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거나 직업적 동기 수준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을 밝히는 실습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특히 수업이나 학생관계와 같은 교직의 본질적 업무요소 보다는, 직업안정성이나 방학 등의 외부적 요소 때문에 교직을 고려한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대체적으로 교직을 선택하는 예비교사들은 교직의 안정성, 정년 시기, 여유로운 시간, 방학, 주변의 권유, 사회적 인식 등의 요인들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보고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김병찬, 2003; 황원철, 김정규, 1993). 또한 교사업무 중 공문작성 등의 행정적 업무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즉, ‘수업’이나 ‘교사-학생관계’ 등 교사의 ‘본질적 업무 요소’에 관심을 두고 많은 성찰을 한 경우는 교직에 대한 긍정적 입직 동기를 강화하는 반면, ‘행정업무’나 ‘교직안정성’ 등 ‘주변적 직업 요소’에 초점을 둔 실습생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 회의감을 보다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깊이 있는 직업탐색에 대한 아쉬움

나름대로 4주라는 짧은 실습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찰의 기회를 갖고, 교직에 대해 탐색한 내용들을 회고하기도 하였지만, 일부의 학생들은 직업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의 기회를 갖기 이전에 교육실습 경험 자체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각오를 드러내고 있었다. 즉, 본인의 체육교사로서의 ‘미흡한 준비수준이나 자질’ 및 4주간의 실습기간이라는 ‘짧은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깊이 있는 직업탐색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이것을 개선해야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깨달음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고민했었구나...란 생각이 든다.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교육학에 대한 공부 및 연구를 하게 될 때 예전과는 다른 마음과 가치관으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NJJ, 일지)

한 달 동안 부족한 내게 배운 학생들에게 미안함과 섭섭함이 느껴졌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며 교사의 자질과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대학으로 돌아가 다시 연구하는 자세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KSH, 일지)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현장과 교직에 대한 탐색의 기회가 본인이 체육학 및 교육학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인한 경우는 향후의 학업적 준비와 몰입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의 학생들은 보다 깊이 있는 직업적 탐색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여건 및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과 요구를 토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생들은 교육현장 및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3주차 정도에 이루어지고 4주차에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교육실습을 마치게 되어, 또 다른 측면(교사관, 직업관 등)을 경험하기에는 4주간의 기간은 짧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커지게 된다는 연구(김병찬, 2005)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실습기간이 교육실습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라고 지적한 선행연구들(김대진, 2006; 손천택, 2002; 유정애, 2000)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짧고, 더욱이 아무것도 잘 모르는 교생에게 수업계획을 짜 와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학교 현장에서도 교생들이 오는 것을 별로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 한 달이란 시간동안 모든 걸 다 배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BY, 면접)

3주째부터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마인드 맵을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성관, 가치관, 가족관계, 학교관계, 진로에 대한 생각과 고민 등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양하게 엿볼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만 좀 더 있었더라면...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SYG, 일지)

이상과 같이 체육과 학생들은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의미있는 탐색을 하고 나름의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혹은 보다 의미있는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실습의 기회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체육교육 전공 학생들의 교육실습이 어떠한 과정과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교육실습과정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였는가를 현상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육실습의 과정과 내용 및 실습경험의 의미와 인식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탐색할 수 있었다(표 4).

우선, 교육실습의 과정과 내용 차원에서,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은 ‘참관→수업실시→종합평가’의 흐름으로 실습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습기간(4주)의 첫 주차부터 실제수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학교행사나 실습생의 경기 참가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습 중에 공백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습과정을 통해 체육과 실습생들은 학생상담을 포함한 학급경영, 체육교과지도, 행정업무 등에 관해 주로 실습경험을 하고 있었다.

〈표 4〉 체육교과 실습생들의 교육실습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 결과

경험과 인식의 범주		구체적 내용 및 의미
교육실습의 과정과 내용	교육실습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관→수업실시→종합평가</li> <li>○ 실제 수업 운영에의 조기 투입(1주차)</li> <li>○ 실습 기간 중 공백기 발생 존재</li> </ul>
	교육실습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지도</li> <li>○ 학급경영</li> <li>○ 행정업무</li> </ul>
교육실습 경험의 의미	지식의 실천적 적용: 교과전문성 및 정체성의 인식과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 적용 및 확인의 기회</li> <li>○ 대학 체육교사교육과 체육교육현장 간의 거리감 인식</li> <li>○ 체육교과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감</li> </ul>
	현장의 암묵지 습득: 학습과 성찰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교사의 수업 노하우 습득</li> <li>○ 지도교사의 교과지도 외적 측면을 통한 교사관 습득</li> <li>○ 실수와 잘못된 점을 통한 학습</li> </ul>
	교직 탐색의 기회: 자신과 직업세계와의 적합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에 대한 긍정적 구직 동기 확인 및 점검</li> <li>○ 교직에 대한 부정적 직업인식 형성</li> <li>○ 깊이있는 직업탐색에 대한 아쉬움</li> </ul>

다음으로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은 실습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질적 분석결과 확인되었다. 첫째, 지식의 실천적 적용 기회를 가지며 교과전문성 및 정체성을 인식하거나 또는 혼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어떤 학생들은 체육교과를 직접 적용해 보면서 지식 적용 및 확인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회고했고, 또 어떤 경우는 대학 체육교사교육과 체육교육현장 간의 거리감을 인식하거나 체육교과의 중요성에 대해 회의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해당 연구에서는 지식의 실천적 적용이라는 교육실습의 본래적 취지가 실현되는 한편,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부정적 경험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 비중있게 나타났다. 둘째, 교육실습 경험을 통해 수업을 관찰하거나 직접 진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장의 암묵지를 습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의 교수학습 기법 및 수업과 학생의 관리, 안전유지 및 운동기술 지도상의 노하우를 습득하거나, 교사-학생 관계를 관찰하며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상담, 교사의 자질 등에 대한 교과지도 외적 측면을 통해 학습과 성찰의 기회를 지니기도 했다. 또한 실습하는 가운데 실수 또는 잘못된 경험을 하거나 현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을 관찰하면서도 그런 것을 개선해야 하겠다는 학습과 성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실습은 또한 예비교사들에게 교직에 대한 탐색 및 직무훈련의 기회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습을 하면서 직업으로서의 교사와 직장으로서의 학교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탐색해 보는 기회를 지니며 자신과 직업세계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업이나 교사-학생관계 등 교사의 본질적 업무 요소에 관심을 두고 성찰을 한 실습생의 경우에는 교직에 대한 긍정적 입직 동기를 강화하거나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반면, 행정업무나 교직안정성 등 주변적 직업 요소에 초점을 둔 실습생들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소 반감이나 부정적 회의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이 실습경험을 통해 실제로 무엇을 하며 인식하고 느끼는지에 대해 규명한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교육실습이 현장적합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실습생이 소속된 대학측과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 현장학교 및 교사, 그리고 실습생 본인의 차원에서 각기 역할 제고 및 변모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습생은 체육교과에 대한 전공지식을 충분히 함양하고 충실한 실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실습의 최대수혜자이자 주체는 실습생 본인이다. 교육실습을 통해 충분히 전공교과 지식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용하며, 직업적합성을 탐색하고 암묵지를 습득하는 일련의 경험들은 실습생이 어떠한 준비와 노력, 열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고 나간 학생은 보다 충실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실습생은 그저 4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본인의 전문성에 대해 예비검증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

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은 학교현장에 대한 현실적 안목으로 실습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실습생들이 준비된 자세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내실있는 실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실습학교들과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실습기간 동안 수업계획서 작성이나 수업참관 및 실시 등 계획한 대로 실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실습생들이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인 실습을 이행하고 올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습에 대한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습계획안을 설계 및 권고하고, 이것이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는지 혹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은 없는지 등을 탐색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학교 측의 실습운영지침을 개발하여 대학뿐만 아니라 실습학교에 어떠한 역할이 기대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실습학교는 학교의 전문인력을 스스로 양성한다는 자세로 실습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절반을 웃도는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의 일지에서 오리엔테이션과 수업참관의 충분한 기회 없이 실제 수업운영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에서의 체육수업모습과 교사활동을 보며 체육교과의 중요성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실습현장 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실습을 위한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실제로 가장 많은 관여를 하고 있는 실습지도교사들이 교육실습생을 지도하는 태도와 행동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체에서는 신입사원이나 인턴사원을 지도하는 선배사원(멘토 또는 OJT 트레이너, 코치 등)에게 지도하는 책무와 함께 활동비 지원이나 인사고과 반영 등과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같은 맥락에서 실습지도교사들이 내실있는 교육실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침 및 인센티브 마련 등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체육과 교육실습생은 충실한 실습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며, 대학은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실습학교는 실습 지도교사의 내실있는 역할이행을 돕기 위한 지침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현장적 합형 체육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반드시 학계의 실천적 연구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내실있는 교육실습 설계 및 운영을 위해 각 주체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무엇을 지원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현장지향적 연구가 심화되어야 한다. 즉 실습지도교수와 학생소속대학, 실습현장학교와 지도교사 등이 구체적으로 교육실습

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와 난점을 지니고 있고, 합리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는 교육실습생만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기에 대학이나 실습지도교사 등과 같은 다른 대상자들의 시각에서 해당 현상을 규명하고 내실있는 교육실습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들이 심화·후속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교육 전공 교육실습생들이 학교의 실습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교과전문성에 대한 자부심과 교수효능감(teaching-efficacy)을 느낄 수 있도록, 체육교수법 및 이론과 현장과의 관련성 등을 충분히 익히고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대상자들은 교육실습에 참가한 뒤 대학체육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체육교육현장 간에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체육교사로서의 미흡한 준비수준이나 자질로 인해 실습이 깊이 있는 직업탐색의 기회로 활용되는 데에 아쉬움이 남았다고 회고하였다. 따라서 교실 상황뿐만 아니라 운동장과 같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변인이 많은 실제 수업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연구와 모형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실제 이론과 지식을 어떻게 접목하여 지식과 현장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적용하여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계획안 작성 및 모의수업 실시 등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 더욱이 실제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게 될 교수법 향상을 위해 실제 수업시연을 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마이크로티칭 형태와 같은 실제적인 교수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체육과 교육실습생들이 보다 준비된 자세로 실습에 임하여,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보다 충실한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동원, 박은창(1995). 예비체육교사의 교수학습경험 분석을 통한 대학체육교사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 13-26.
- 강선보, 권대봉, 오영재, 한용진, 홍기춘(2007). **교육실습론: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강신복, 이승배, 전세명, 성기훈(2008). 초등학교 체육교과서 개발의 방향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5(1), 36-61.
- 강환국(1995). 교사양성제도 개혁방향: 단기-교육과대학 설치, 장기-4+2 체제 적당. **새교육**, 6, 87-91.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부(2004).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
- 교육인적자원부(2006).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
- 김대진(2006). 중등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4), 23-34.
- 김대진(2008). 중등체육교사양성 교육과정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5(1), 21-37.
- 김병찬(2003). 교육대학 교육실습제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23, 31-74.
- 김병찬(2005). 예비교사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는가?. **교육행정학연구**, 23(4), 49-76.
- 김신영(2005). 교육실습에서 나타난 예비교사의 문제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1-23.
- 김영우(1994).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교육학연구**, 32(4), 39-66.
- 김용환(1992). 체육교사교육의 방향. **교육개발**, 78, 16-19.
- 김용환, 김영희(2001). 체육교과에 대한 교육대 학생의 교육실습 실태 분석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5(2), 72-85.
- 김이경(2003). **OECD 교원정책 검토사업 참여와 시사점 분석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희(2008). 체육교육에서 실천연구의 의미와 반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5(1), 1-20.
- 류태호(2002).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과교육공동연구 학술세미나 발표집**, 625-636.
- 박종률(2006). 중등 체육 1정 자격 연수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4), 81-104.
- 백유순, 박계신, 박혜준, 박현주(2005). 유아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현장실습」 과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멘토링 모형 개발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5(2), 48-87.

- 손준구(2006).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체육교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전교사교육의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4), 5-22.
- 손천택(2002). 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9(2), 26-42.
- 손천택(2006). 체육교사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4), 1-3.
- 신승호, 김승재(2004). 고등학교 2, 3학년의 제 7차 체육과교육과정 선택경향 및 원인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193-211.
- 유정애(2000). 초기현장경험과 체육교사교육. **한국체육학회지**, 39(4), 757-767.
- 유정애(2005). 교사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과정 및 내용.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31-56.
- 유흥옥(2005).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 유치원 교육실습과 예비교사의 발달적 변화. **유아교육학논집**, 9(1), 257-277.
- 윤기옥, 이학주(2001). 반성적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교사·초임교사·교생의 지각분석. **초등교육연구**, 14(3), 317-345.
- 이인경(2005). 특수체육 건강교과 교육실습의 의미 탐색: 좌절, 사랑, 희망. **특수교육학연구**, 40(3), 299-314.
- 정혜영(2008). 교육실습을 통한 교육실습생의 교육신념 변화 연구. **초등교육연구**, 21(2), 235-257.
- 조미혜, 박수정(2006). 체육교육실습의 심리적 촉진 및 방해요인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5(1), 329-338.
- 조석훈(2004). 교육실습생의 교직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01-224.
- 최관용(2006). 중등체육교사 연수의 현황과 과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4), 105-124.
- 최의창(1994). 체육지도자 교육의 논리와 한계. **스포츠과학**, 48, 36-43.
- 최의창(1996). 교사연구와 체육교사교육.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1), 1-20.
- 최의창(2007). 중등체육에의 통합적 접근: 학문적 접근과 서사적 접근.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349-376.
- 최진숙(2005). 예비교사의 교육실습 전후 인식비교. **아동학회지**, 26(4), 113-123.
- 최희진(2003). 협력실습이 교생의 교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2(6), 367-376.
- 한국교육개발원(1997). **사범대학 평가 기준(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센터 체육과 교육 개관. <http://classroom.re.kr/view.jsp?mcode=1710>
- 한지혜(1993). 교육실습이 교생의 교육신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허창수(2007). 교육지식을 재구성하는 장으로서 교육실습: 다섯 교육실습생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5(1), 95-127.
- 황원철, 김정규(1993). 사범대학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실습 개선방향. **교육이론과**

실천, 3(1), 3-24.

- Clement, M. (2002). What cooperating teachers are teaching student teachers about classroom management. *The Teacher Education*, 38(1), 47-62.
- Creswell, J. W.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Hill.
- Frese, M., & Altman, A. (1989). The treatment of errors in learning and transfer. IN L. Bainbridge & S. A. Quintanilla (Eds.), *Developing skills with new technology*.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Ivancic, K., & Hesketh, B. (1995). Making the best of errors during training. *Training Research Journal*, 1, 103-125.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Nonaka, I. (1987). Managing the Firms as Information Creation Process, Working Paper, January (published in J. Meinde(Ed.)) (1991), *Adva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in Organizations*, 4, JAI Press.
- Nonaka, Ikujiro. (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5(1), 14-37.

• 논문 접수 : 2008년 12월 28일 / 수정본 접수 : 2009년 2월 6일 / 게재 승인 : 2009년 2월 20일

## ABSTRACT

### An Exploration of the Meaning of Physical Education Students' Experiences during the Teaching Practicum

Yong-Gwan Song(Doctoral Student, Korea University)

Chong-Hyun Pyun(Research,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teaching experiences and meaning of student major in physical education during the teaching practicum. In order to attain this purpose, 82 written journals of teaching practicum and 14 interview data was analyzed by phenomenological approaches in qualitative research.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As the point of process and contents of teaching practicum, student teachers was doing the process of 'observation→teaching practice→final evaluation'. Especially, student teachers was experienced actually full teaching at first week. They were doing 'physical instructing, class management, educational administration' mainly during that period. On the other hand, as the point of recognition and meaning about the teaching practicum, student teachers were experienced as follows. First, student teachers were having opportunities to apply physical knowledges to the real situation. To be concrete, student teachers recognized or were confused profession and identity on physical education. Second, as learning and externalizing practical know-how, student teachers were making meaningful tacit knowledges. Third, considering a teacher as an occupation, student teachers were having opportunities as job investigation. These findings can contribute to enhance and improv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especially teaching practicum by addressing student teachers' experiences and recognitions from his or her perspective.

Key words : practicum, student teachers, physical education, student teaching experience,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PETE)